



국민의 자리에서 본다

축산인의 공동체 의식

노영한
(대한양돈협회 전무)

보도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다.

에치오피아에서 40만명이 굶어 죽는다 해도 이러한 사실이 TV, 신문 등을 통해서 보도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그들을 동정할 수도 없다. 얼마전 소련의 지진 참사에 우리가 위문금품을 보낸 것도 신속한 대중매체의 역할이 컸었다.

박종철씨의 물고문 사망도 신문에 보도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끔찍한 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통제합하고 보도를 통제하므로써 구린내 나는 사건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게 되고 없었던 것으로 되어 버리고 만다.

회사들은 반대로 자기가 만든 상품이 보도기관을 통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보도기관들은 특별한 신제품이나 뉴스 가치가 있으면 몰라도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광고를 하게 된다. 광고를 하지 않는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이다.

'88년도에 국내 기업들이 지출한 광고비가 1조2천7백억원으로 '87년도에 비해 31.5%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제일기획 집계). 기업들이 광고에 따른 중요성을 점점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매체별로 보면,

매체	별	광고액	비율
신	문	4천8백30억원	36.2%
T	V	4천4백47억원	34.8%
잡	지	6백51억원	5.1%
라	디	5백15억원	4%
옥	외	2천2백69억원	17.8%
해	외	2백70억원	2.1%

역시 광고는 신문 TV가 70% 이상의 비중을 이루고 있다.

'88년 광고비지출 20대기업 (단위: 백만원)

순위	광고주	광고비	순위	광고주	광고비
1	태평양화학	21,859	11	롯데칠성음료	8,836
2	럭키	21,178	12	동아제약	7,842
3	삼성전자	19,104	13	일동제약	7,669
4	금성사	18,633	14	대우전자	7,504
5	제일제당	12,400	15	대우자동차	7,502
6	롯데제과	10,734	16	남양유업	7,137
7	대웅제약	10,318	17	유한양행	7,035
8	농심	10,216	18	삼양식품	6,515
9	해태제과	9,730	19	현대자동차	6,514
10	동서식품	9,709	20	애경산업	6,501

광고비 지출을 많이 한 업체로는 2백억 이상을 지출한 업체가 2개 회사이고 상위 20개 회사가 65억 이상을 지출하였다. 상위 20개 회사 중에는 식품회사가 8개나 되어, 식품의 경우 광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8년중 양돈협회에서 돼지고기 소비홍보를 위해서 사용한 홍보비가 태평양화학 한 회사 광고비의 0.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자조금제도(Check off system)가 정착되지 않으면 우리가 생산한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소비자들이 먹기 쉽도록 새로운 가공품을 연구·개발 하는데 소홀해져 산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소비자들의 식생활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핵가족화 되어가고 아침식사를 간편하게 하거나 거르는 경우가 많으며 도시락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 등이다. 집에서 굽는 것으로 알았던 김이 구운 김으로 상품을 고급화 하고 광고를 하므로서 여름철 비수기가 없어진 것 등이 좋은 예이다.

최근 조사한 식생활의 변화를 보면, 서울시민의 아침식사 시장은 8천6백억원으로 밥을 먹는 88%를 제외한 12%의 인스턴트 식품으로 식사

를 하는 1천5백~2천억의 시장에 햄, 소세지 등 육가공품이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점심도 밥이 53%, 면류 24%, 빵 5%의 순인데, 돈까스 등이 점심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노력하고 서울 가구의 32%가 도시락을 준비하는데(3억2천개) 김과 햄, 소세지, 계란 등의 순으로 반찬이 준비되고 있어 이러한 식생활의 변화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성장기에 한번 입맛이 굳어지면 좀처럼 바꾸기가 힘들다고 한다. 우리가 아직도 어머니가 끓여 주는 된장국이 가장 맛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금년들어 정부가 수입쇠고기를 물가 안정을 위해 집중적으로 방출해서 이대로 가면 수입물량이 당초 계획량인 4만여톤(3만9천톤)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수입쇠고기 판매점포를 늘리고 포장육 등 제품을 다양화 하면 판매량이 크게 신장할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번 소파동이 올 것이라고 걱정하고 농림수산부도 일간지에 크게 광고를 하고 있을 정도이다.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왕자를 교육시킬 때가 가정교사가 왕자 옆에 왕자와 나이나 용모가 비슷한 왕자의 친구를 두고 왕자가 공부를 게을리하거나 즐기거나 하면 왕자에게 매를 댈 수 없으니까 대신 친구를 때린다고 한다.

소를 기르는 농가가 매를 맞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모든 축산인이 매를 맞는 것으로 느끼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점점 조여오는 수입개방압력에 축산인, 축산관련인 모두가 힘을 합해도 어려운데 내부 문제로 자체 정리가 안되면 서서히 사라져갈 뿐이다.

양축가가 매를 맞는 것은 사료회사와 동물약품, 기계기구, 도축장, 모든 연관산업이 매를 맞는 것이기 때문이다. **■**